

구속, 수배, 그리고 아! 어머니 -- [김진국 이야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shes2u&logNo=140095904307>

### 얼굴없는 조직, 이름없는 역사

당시 운동권의 역사는 얼굴과 이름이 없는 역사다. 한 번 검거되면 줄줄이 연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가명을 사용하고, 조직에도 명시적인 틀과 대표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직 조직의 이름만 사용되었다. 수배된 경우에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개인기록마저 다 없애버렸다. 내 경우는 검거전담반이 부모님 계시던 집과 처가집, 시골 친척집에까지 수색과 잠복을 했지만 검거하지 못해 고등학교 앨범사진으로 수배전단을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정리하기도 어렵거니와 누가누군지를 명확히 기억하기도 어렵다. 다만 각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해고되고 초기에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카톨릭 인천교구 노동사목 등지에서 모였으나, 몇몇 주요인물들이 수배되면서 지하조직의 양상으로 변모해갔다. 처음에는 노동운동탄압저지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대부분이 노동현장에서 해고되고 쫓기던 터라 생활은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모임을 지속해나갔다. 그러다가 수배자들이 늘어나고 좀더 본격적인 조직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비합법 조직활동으로 바뀌었다.

내가 소속되어 이끌고 있던 조직은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당시에는 조직이 분화되거나 입장차이가 크게 드러나기 전이어서 대체로 함께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나는 주로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지도부였던 김문수, 심상정과 만나 공동투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고, 수배상태였기 때문에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에서는 손을 떼고 인노련 명의의 유인물 작성 등을 맡았다.

1986년 제1야당이던 신민당이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순회집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은 5월3일 주안의 시민회관에서 개최기로 결정되었다. 당시에는 인노련이 인천지역 노동자투쟁조직을 대표하는 셈이었으므로, 우리도 총력대응기로 하고 전술을 짜는 한편 다른 조직들과도 연통을 넣었다. 4월말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에 놀란 신민당이 학생시위를 비난하며 발을 빼자, 재야 및 운동권은 독자집회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5.3 인천사태'라 불리는 사건으로, 집회는 시작도 못한 채, 몰려든 1만여명의 시위대가 주안역에서 시민회관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319명이 연행되었고 129명이 구속되었다. 신민당은 재야와 운동권을 비난하며 선을 그었고, 운동권은 비합법 지하조직화되었다.

이 사건과 함께 김문수를 비롯한 서노련 지도부가 검거 구속되었다. 서노련에서 노동자신문을 만들던 형도 구속되었다. 심상정과 노동자시인 박노해는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조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지하조직화되었다. 한편 서울에서 대거 내려왔던 학생운동조직들은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노선투쟁, 사상투쟁에 불을 붙였다. 별다른 이론적 무장없이 노동자정치조직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인식에 머물던 노동운동활동가들은 충격을 받았다. 일부는 '주체사상'에 동조하여 조직을 떠나기도 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활동가들은 나름의 이론적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지하조직들로 분화해나갔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인천부천노동자회, 인천지역노동자동맹 등. 패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분열이다. 나는 인천지역노동자동맹에 속해 있으면서 심상정과 만나 서노련재건을 모색했으나 실패하였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재야운동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소원했던 신민당도 재야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전두환이 4.13 호헌선언을 하자 비로소 신민당은 전두환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며 다시 재야와 재결합하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재야와 신민당의 결합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와서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6월말 노태우의 직선제개헌추진 선언(6.29 선언)을 내세워 전두환정권은 무릎을 꿇었다.

정 치권은 개헌 준비와 다가올 직선제 대통령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구속자들이 석방되고 수배자들의 수배도 해제되었다. 그러나 수배의 동기가 애매한 상태에서 검거되지 않았던 일부 활동가의 경우 어정쩡한 비합법 생활이 계속되었다. 1986년 이후 많은 활동가들이 비합법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6월 항쟁으로 열려진 공간에 7월부터 전국에 걸쳐 노동자대투쟁이 분출하였다. 구로 및 인천지역은 물론 멀리 울산과 마산, 창원까지 노동조합민주화와 노조결성투쟁이 번져나갔다.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이끌던 고(故) 권용목씨를 비롯한 걸출한 노동운동지도자들이 등장하였다. 울산시내를 마비시킨 연대투쟁은 조만간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비합법노동운동조직들은 여러 경로로 노동자대투쟁에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전국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서노련의 일부와 인천노동자동맹, 안양의 조직이 묶여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이 되었다.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민노련)도 마산 창원 울산 등에 연계조직을 만들어나갔다. 박노해가 이끌던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도 결성되었다. 합법적으로는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확산된 민주노조들을 중심으로 전노협 결성이 추진되었다.

직선제 개헌에 이어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은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패배보다도 쓰라린 것이 분열이다. 야권도 분열하였고, 비합법 조직들도 갈라졌다. 하지만 기반이 넓어진 대중운동은 점차 분열을 극복하고 뭉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의 숙원이던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노총을 탈퇴한 노동조합들은 전노협을 결성하였다. 비록 단병호위원장이 곧 바로 수배되는 등 아직은 합법적 공간이 충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합법적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은 분명했다.

직선제와 선거를 통한 합법적 정권교체 가능성의 등장, 전노협 등 합법적인 대중운동의 성장 등으로 비합법노동운동조직들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었다.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그간의 활동으로 수배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체제의 붕괴는 이념적 지형마저 흔들어 놓았다.

### **구속 - 치안본부 대공분실**

노 태우정권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1990년 3월 30일, 아이를 낳아 함께 살고 있던 원미초등학교 옆 연립주택 집앞에서 사복형사들에게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20일간의 감금조사 끝에 구속되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대대적인 검거선봉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속속 들어왔다. 밖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비로소 거기에서 얼굴을 맞대고 본명(이름)을 확인하며 만났다. 비록 수의에는 번호를 달고 만났지만, 나는 더이상 가명을 쓰지 않고 김진국으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노회찬도 만나고 김학원도 만났다. 얼마 후에는 김근태 선배와 장명국 선배 등도 계속 들어왔고 가을에는 사노맹의 박노해도 구속되어 들어왔다.

나는 거기서 늘상 따라붙던 '분열된 운동권'이란 딱지를 떼고 싶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사건으로 들어왔지만 비슷한 생각을 품고있던 조직의 대표자들간에 만남을 시도했다. 그래서 더이상 기존 조직을 재건하지 말고, 더 큰 틀에서 합법적인 대중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가족을 통해 밖에 남아있던 활동가들에게 전했다. 그 글들을 모아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라는 공동저작의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제 다시 1980년대 전두환 치하의 활동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 아! 어머니 --

나 에겐 두 살 위의 형이 있다. 형은 세 번 징역을 살았다. 1979년에 유신철폐 학생시위로, 1985년에 서노련사건으로, 그리고 1990년에 나와 같은 삼민동맹사건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각각 한 번씩이다. 나는 주위의 도움으로 용케도 잡히지 않고 잘 도망다니다가 1990년에 처음 구속되었다. 두 형제의 구속과 수배로 눈물이 마를 날 없던 어머니는 1990년 2월 하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길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상태로 입원하셨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다. 미행이 붙은 줄은 알았으나 어머니를 홀로 돌 수는 없었다. 곧바로 미행이 붙었고 얼마후 연행 구속되었다. 처음에 형은 일시 피신하였으나 어머니 간병 문제로 반자수 형식으로 검거 구속되었다.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부모님에게 형제는 아무 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 '서울대 합격'이란 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전부였다. 그 후로는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고, 형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강원도 전방으로 가고, 제대 후에도 둘다 번듯한 직장은 커녕 노동현장으로 가고, 수배되어 도망다니고, 다시 구속되고.....

구속이 되어 내 이름과 얼굴은 찾았지만, 어머니 병세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조직의 수괴로 몰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안양교도소를 거쳐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형은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1991년 봄, 광주교도소로 어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1년만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마침내 한많은 세상과 야속한 아들 형제에 대한 애증의 미련을 내려놓으신 것이었다. 나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다. 형은 귀휴를 받아 교도관을 대동한 채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였지만, 나는 내보내주지 않았다. 그렇게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인사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를 내 가슴에 묻었다.